

투데이 칼럼

행복의 길

사람들은 성공,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어수선한 시기에 내민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우·행·시"란 말이 있다. 우·행·시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몇해 전 나온 어느 유명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견해사 구호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그 소설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간결한 세 글자가 주는 뉘앙스가 좋고, '욕심세대'라 그런지 어딘가 짧은 이들이 씩씩한 말이라 좋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내민의 행복을 말하는 나·행·시가 아니고 우·행·시라서 더욱 좋다. 삼라만상을 망라하고 모든 인간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새 봄과 함께 국가나 사회적이나, 나 개인에게도 어렵고 지루한 날이 지나고 새 힘이 솟는 날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위에 놓으시고 별판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짧은 화창시절 시인이 되어 읊조리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작품의 현실에서 위대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여름의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제 할 일을 다 하고자 죽자살자 울어대다가 목숨을 다함이 위대한 일'이요, 조그마한 트럭에 수박을 가득

싣고 달고 시원한 수박 사라고 고래 고래 외치던 수박장수의 힘든 일상이 위대하고,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여 장학금을 내놓는 삶이 위대함이다. 거창한 구호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그마한 목소리에 겸손하게 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어 더 그뿐인가. 그다지 힘 안 들이고 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밝고 긍정적이란 뜻이다.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 아니겠는가!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센터 대표

유대인의 격언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란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의 향수가 떨어진다. 우리가 남에게 유익한 일을 도모하며 열심히 일할 때 몸은 피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뿌듯하며 표현하기 힘든 행복감이 물려온다. 그래서 헬렌켈러는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말을 인생의 삶에서 큰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소중한 말을 되새기면서 용기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독자제언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매일 밤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방문하여 이유 없이 고성과 욕설, 심지어 기물파손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주취자들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관공서는 주취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반딧불이처럼 술에 취한 행패를 부려 모든 경찰관이 이들과 사는 곳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단골 주취자도 있다. 지구대 업무 중 70% 이상이 음주로 인한 민원이다. 주취폭력, 무전취사, 요금사비,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업무를 처리 하느라 바쁘게 이틀까지 직접 찾아오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아닌 것이다. 이들로 인해 겪는 피해는 실로 크다. 첫 번째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두 번째로 이들로 인해 다른 중요한 곳에 쓰일 치안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강·절도예방을 위해 골목길 구석구석 순찰을 하며, 강력범죄 신고 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구조 및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영 받지 못하는 손님들로 인해 정작 경찰서비스를 받아야 할 위급한 사람에게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도 이웃 주민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선하고 모범적인 시민이기 때문에, 관공적인 태도로 경교에 그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와 경찰에서는 이러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공권력 확립에 나서기로 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심하면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공서에서의 이러한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위급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이 받는다. 이러한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내 가족, 내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백경주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독자제언

얇게운전자 잡아내는 블랙박스 공익신고

우리나라 블랙박스 보급률이 35%에 이르렀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보편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의 산정이나 행소나 및 각종 범용적인 태도로 경교에 그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본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관의 단속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일반인들의 신고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관련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로위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대상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난폭 보복 운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것

길통행 등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목적자를 찾습니다(APP) 또는 인터넷 국민신고 접속,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 사실과 위반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운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과 촬영된 영상을 신고 접수하면 경찰은 내용 분석 및 법규위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요청서를 발송 후 운전자를 확인 한 뒤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 도로 위에 숨은 곳은 없다.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 나를 지켜보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인 법규를 어길 수 없을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장마철 철저한 안전점검 해야

장마철이다. 요즘 자주 비가 내리고 있다. 거의 하루나 이틀 간격을 두고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평년 때 같으면 6월 하순에 있어야 할 장마가 7월 들어서 계속 되고 있다. 아직 우리 전북 지역에는 이렇다하게 큰 비가 내린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밤심은 글썽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있어야겠다. 이번 여름 장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그래도 미리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예전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날 그랬던 것처럼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장마철 뉴스의 주종은 물의 넘침이다. 예전에 장마 뉴스는 보도하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볼 때면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물이 도로를 점령하고 또 집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매년 당하는

일인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다시 장마가 닥치기 전에 하수도 시설을 점검해서 물 빠짐이 좋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는 대비가 있어야겠다. 노후 된 건물이나 축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내에는 언덕의 경사진 곳에 들어선 건물이 많은데 전주시 지역의 고지대에도 그런 건물이 많다. 건물의 벽에 금이 간 건물은 국지성 호우에 균열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붕괴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서라도 철저한 점검이 요망된다. 보수를 미루었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면 곤란하다. 요즘 같은 때는 도로의 사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산 절개지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낙석사고 예방은 필수적이다. 낙석사고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 낙석 방지를 위한 철조망 설치나 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녹슬고 오래 돼 시설물 교체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이다.

공무원은 도덕성을 확립해야

공무원들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 새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유감이다. 이래가지고 서야 어디 도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도민들의 시선이 어떤지 깨달아야 한다. 도민이 도내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결코 따뜻한 것이 아니다. 도민의 시선을 아파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거듭 환골탈태해야 한다. 매사 자기 이익에 맞게 처세하며 이권을 쥘려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막 나가면 좋을 게 없다. 새로워지겠다는 각오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눈 밖에 난 채로 있을 것이 뻔하다. 도민의 눈 밖에 나고서도 도민의 친구라니 공복이라니 하는 따위의 소리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면 오산이다. 지금 도내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싸늘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전북 경찰청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가 할 노릇이다. 음주 운전 같은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 등 그 범죄의 종류라는 게

다양하다. 도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니 못된 사람도 더러 섞여 있으리라는 짐작을 해보지만 일맛이 여간 쓴 게 아니다. 범죄자들 중에는 뇌물 수수나 공문서 위변조 같은 죄무 범죄자도 있고 사기나 횡령같은 지능 범죄자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살인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자도 있으니 기가 할 노릇이다. 지난날 공무원들 중에 일탈 행위를 하는 이들이 적발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했던건 그게 무위로 돌아갔으니 소구에 경멸기였던 모양이다. 공무원은 도덕성을 확립해야 한다. 도덕성을 확립하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인가 오해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다. 보통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도덕성만이라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인종은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두 번이라 하지 못할만 하면 터지고 또 터지는 공무원 범죄 뉴스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도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매년 증가했는데 많이 화가 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삼기일전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